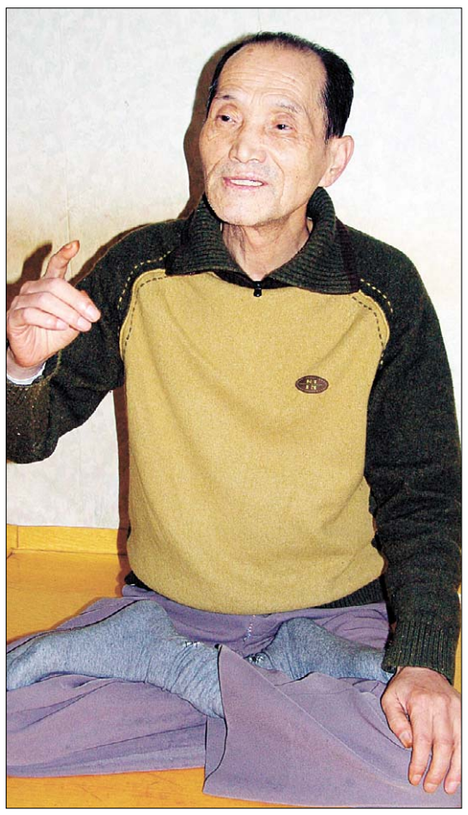
B05면 2009.4.2711:7AM페이지1(1,1)

“편견에 사로잡히는 사상 버려야”

〈四相〉

정견 7보(寶)경전 외워 법문

성상현 법사



“정견(正見)을 흔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색안경을 쓰고선 절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관적 관점을 벗어난 정견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여읜 자리에서 실상(實相)을 보는 것입니다.”

〈아함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의 7보(寶) 경전을 모두 외워서 설법하는 성상현 법사(75)는 ‘정견’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팔정도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한다. 수행자들은 안목을 중요시하지만, 안다고 하는 그것이 대부분은 아상(我相: ‘나’라는 생각) 인상(人相: ‘남’이라는 생각) 중생상(衆生相: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壽者相: ‘오래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착각

‘응무소주이생기심’ 법문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
‘가르침대로 실천’ 선교일치

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사상(四相)을 버려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수행은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정견이란 다시 말하면, 〈금강경〉의 ‘응당 어떤 사물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不應住色生心),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요(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응당 머무는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應生無所住心)’ 하는 법문과 같습니다.”

성 법사는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응당 머무는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하는 법문이 자성(불성)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고난 업식(業識)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실상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성자리에서 보고 듣는다면 보고 들으면서도 아견(我見)이 없다. 이런 때는 ‘보는 그 놈이 여래’라는 것이 성 법사의 견해다. 즉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來)니라’ 하는 금강경 사구게(四句偈)와도 상통한다.

성 법사는 이에 대해 ‘무릇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그게 곧 여래이니라’라고 새긴다. 이런 뜻 새김은 선사들의 견해와도 일치하는데, 성 법사가 수많은 경전을 통달해 종횡무진 경전을 비교하며 강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성 법사가 오랜 경전공부를 통해 정견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읽고 외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르침 그대로 실천(如說修行)’했기 때문이다. 경전을 오래 수지독송 하다보면 부처님의 깊은 뜻이 저절로 드러나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에 관음정근이나 능엄주, 절하기 등 실참을 병행하게 돼 선교일치(禪敎一致)가 저절로 이뤄지는 셈이다.

성 법사는 “경전을 읽고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경을 굴리는 전경(轉經)이 된다”며 경전을 읽고 듣고 옮겨쓰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을 익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성품 즉, 실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수행자는 끝없는 하심과 언행일치로 사상을 여의는 공부를 해야만 견성(見性) 성불(成佛)해 생사에 자재한 무여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성 법사는 40대 초반,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음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한 스님이 건네준 〈금강경〉을 보고 외운 후 경전을 공부하게 됐다. 이후 불과 몇년만에 7보 경전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경에 통달한 성 법사는 30여 년 동안 스님과 재가자를 위해 경전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광주불교교육원과 서울 시내 네 개 사찰에서 법문 위주로 설법 중인 성 법사는 조만간 매주 〈법화경〉 등 경전강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02)353-7863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정견(正見: 올바른 견해) – “정견은 사상을 여읜 자리에서 보는 것”

“불법으로 행복발전소 되기를…”

금강강독회 정사유

배원룡 회장



“‘법’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분쟁은 좀 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강강독회 배원룡 회장(변호사)은 청화 스님(1924~2003)을 꼭 닮았다. 스님을 곁에서 지켜본 불자들을 감복시켰던 한결같은 겸손함과 자비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고 있는 배원룡 회장.

금강강독회는 6000여 회원이 청화 스님 법문을 공부하는 다음(daum) 카페 ‘금강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카페)’ 오프라인 모임이다.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호선 동대입구역 ‘우리함께 빌딩 6층’에서 배광식 교수(서울대 치대)를 법사로 〈전통선의 향훈〉 〈정통불법의 요체〉 〈육조단경〉 등을 공부하며 법열을 나누고 있다. 3년 동안 40여 회 강독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도반들의 심부름꾼 배원룡 회장의 공덕이 크다.

배 회장은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라는 정겨운 말들로 모임의 진행을 ‘참잘’ 이끌고 있었다.

가톨릭 신자였던 배 회장의 불연은 1984년경 어느 신부님에게 ‘불교의 참선에 관심이 있다’며 고해성사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배원룡 회장은 신부님이 전한 〈선학의 황금시대〉를 읽고 무위진인,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선사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다.

“대학원 시절 故 이기영 박사님의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에서 들었던 우룡 스님의 〈원각경〉 법문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이후 송광사 여름수련대회, 서울 길상사 일요법회, 불력회 독서모임의 불연이 청화 스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영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배원룡 회장의 삶에 수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최근에는 카페 회원들과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엔 도봉산 광륜사 금강선원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월1회 금강강독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모두 도반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특히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데 염불만한 게 없다’는 청화 스님의 가르침에 따

“불교 참선에 관심있었다”
고해성사로 불교와 인연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

라 절수행과 염불수행을 함께하고 있다.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입니다. 잠시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보리방편문과 염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108참회와 염불로 하루를 마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수행으로 다져온 배 회장의 정사유(正思惟)는 다양한 사건 사고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을 대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돋보인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잘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한 상담원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안내해 큰 보람을 얻었다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도 결국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를 찾아온 이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의도를 갖고, 올바르게 명심하는 정사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요, 수행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원룡 회장의 정사유는 겸손과 하심이 있다.

“제가 재가수행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모임에서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금강강독회 모든 회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삶을 가꾸는데 일조하는 행복발전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 입니다.”

자칭 ‘심부름꾼’ 배원룡 회장의 한결같은 겸손함과 따스함에는 금강강독회를 3년간 여법하게 이끌며 도반들에게 인정받는 정사유 ‘대장’의 향기가 배어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정사유(正思惟: 올바른 생각) – “마음에 그른 생각이 없이 순리대로 풀어감”

불기 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관음성지 휴휴암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정진도량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봉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 축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VISION 1 인성/덕성 함양
VISION 2 외국어(영·중·일) 교육 특화
VISION 3 행정실습 교육 강화
계룡산 기슭에 자리한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 외 교직원 일동